

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20)

다이이치 방적이 IFS 방적법으로 개발한 “클리어 코트”

다이이치 방적의 “아아사”는 꼬임이 전혀 없이 평행으로 배열된 섬유속을 둘러 싸주는 랩(wrap) 섬유로 감아주는 2중 구조의 결속 방적사(結束紡績絲)이며, 흡수성이 좋고 실은 올 마다 반듯하여 시원한 느낌을 주는 드라이한 태가 있다.

이 “아아사”를 한 수 더 진화시킨 것이 “클리어 코트”이다. “아아사” 전용 결속 정방기에 개량 장치를 붙여준 IFS 정방기로 방적한다. 이 장치는 성능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도 꼼꼼하게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1998년의 개발 초기에는 실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여 품질 관리로 고생하였다. 다행히 “다이이치” 방적은 한 공장 부지 내에 방적, 편성, 봉제의 일관된 공장을 갖추고 있어서, 새로운 실이 만들어지면 바로 편성 공장으로 보내 겨우 겨우 납기를 지키는 일도 많았다.

“클리어 코트”는 “아아사”와 같이 일반적인 강연사와는 다른 독특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잔털이 적어 매끈매끈한 실의 촉감이 가장 큰 매력이다. 그래서 “한 여름의 더위 속에서 입기 좋은 면”이라는 뜻의 “성하면(盛夏綿)”이라는 보조 상표가 붙어 있듯이 춘하절용 소재로서 고객에게 꾸준한 인기가 있다.

“클리어 코트”는 이집트 초장면만으로 30수, 40수, 50수를 뽑고 있으며, 판매는 이너용으로는 대부분을 천으로 판매하며, 아우터용으로는 실로 많이 판매하고 있다.

다만 잔털을 철저하게 줄여줌으로써 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면도 엄선하여 이집트 초장면을 사용하고 있다. IFS 정방기는 소재감을 보이기 쉬운 특징도 있어 “클리어 코트”로 편성한 천은 매우 광택이 좋은 아름다운 태를 만들어 준다. ♣